

## [문항]

가) 다음은 ‘평등’에 대한 한 사상가의 주장이다.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근대 사회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은 가령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일단 이 말은 모든 인간을 모든 측면에서 똑같이 대우하는 절대적 평등으로 생각하는 이는 없다. 인간은 저마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난 능력과 소질을 똑같이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평등은 개인의 개성이나 자율성 등의 가치와 충돌하기도 한다.

평등에 대한 요구는 모든 불평등을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유 없는 차별 금지’라는 조건적 평등 원칙은 차별 대우를 할 때는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제시된다면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대우를, 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알려진 스페인 출신의 안토니 가우디는 46년간이나 대성당 건축을 위해 매진하느라 허름한 차림으로 지냈다.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지나가던 노면 전차에 부딪혀 치명상을 당했다. 그러나 운전사는 지저분한 노숙인으로 생각하고 그를 길옆에 팽개치고 가버렸고, 사람들이 병원으로 데려가고자 택시를 찾았지만 역시 노숙인으로 생각한 기사들은 그냥 지나쳐 3번의 승차 거부 끝에 4번째로 잡은 택시 운전사에 의해 병원 2곳의 진료 거부를 당한 후 빈민 구제를 위해 세워진 무상 병원에 보내졌다. 겨우 정신을 차린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주위 사람들과 지인들은 그가 가우디인 것을 알고 상급 병원으로 옮기자고 하였지만, 가우디는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라. 그리고 난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 라며 빈민 병원에 남았고 결국 3일 후 세상을 떠났다.

**[문항]**

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교내에서 매년 시행되는 탐구프로젝트 대회에 참가했다. 나는 같은 반 친구 3명과 함께 조장으로서 프로젝트에 참가한 후 대상 없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팀원 중 2명에게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미국의 구글 회사의 단기 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팀원 중 2명을 선발하는 방법은 팀원의 동료 평가로 결정되며, 나는 의심의 여지없이 상위 2명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연수를 갈 대상자는 팀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지철이와 희명이가 선정되었다. 나는 결과를 수긍하기 어려워 담당선생님을 찾아갔으나, 내가 동료평가에서 최저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